

#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인간의 아름다움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전2권)》

열린책들/A5신/266면 내외/각 7000원



요즘은 조앤 K. 롤링을 부러워하며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속된 생각을 하지만, 한때 소설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다. 이문열이 《젊은날의 초상》 속에 토해놓은 문학적 구원의 풍경에 홀리거나, 혹은 이들을 꼬박 붙들고 늘어진 《에덴의 동쪽》 마지막장을 넘겼을 때 느꼈던 가벼운 희열 때문이었다. 한번은 이외수의 단편소설 <박제(剝製)>를 대학노트에 옮겨 적기도 해봤다. 물론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끝까지 옮겨 적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가끔 술자리에서 안주거리가 돼 줬으니 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설을 거의 읽지 않았다. 입술담배 연기 같은 주인공들의 가벼운 연애행각에 신물이 나서였다. 그러다가 제임스 미치너의 두툼한 소설 《소설(전2권)》(윤희기, 열린책들)을 만났다. 첫 인상은 좋지 않았다. 제목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한 듯해서 맘에 들지 않았지만, 스타인벡의 책처럼 두툼한 맛이 있어 일단 집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루하게 오랫동안 한권의 책에 묻히고 싶다는 마음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하 합쳐 5백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나는 불과 한나절만에 읽어치웠다. 네명의 주인공이 각각 서술자가 된 4편의 독립된 이야기가 서로를 호출하면서 한권의 장편으로 완성되는 독특한 형식, 무엇보다 조금은 느슨한 듯한 작가의 글솜씨 때문에 부담없이 읽었다. 가장 큰 매력은 여기에 묘사된 매력적인 '소영웅'들이 '나도 너처럼 한번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게 했다는 것이다.

주인공인 소설가 '루카스 요더', 편집자 '이본느 마르멜르', 평론가 '칼 스트라이베르트', 독자 '제인 갈런드'는 소설이란 것이 창작되고

제작, 평가, 향유되는 일련의 과정을 구성한다. 한 일류 편집자가 늦깎이 작가의 작품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지만, 평론가의 눈에는 쓰레기로 비친다는 게 대강의 줄거리다. 이를 통해 미치너는 예술의 사회적 생산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노천카페에서 펼쳐지는 피 튀기는 논쟁, 평론가의 감식안을 마련해준 십수일의 예술기행, 대형출판사의 편집자들이 필진과 교섭하는 방식, 그 속에 스민 인간적인 고뇌 등이 창조적으로 일렁인다.

주인공들은 모두 개성이 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범한 유대계 소녀에서 뉴욕의 일급 에디터로 성장한 '이본느 마르멜르'가 가장 눈길을 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편집자의 전형적인 성장기다. 그녀는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투고원고를 뒤적이는 일에서 시작해 전담필자를 맡고, 스테디셀러가 된 고전의 힘과 미덕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기까지 성장한다. 성큼성큼이 아니라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모습을 통해 읽는 이는 일종의 대리체험도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자질은 천재적이다. 하지만 이 '천재'들은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에디슨식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이 작품을 프랑스나 러시아가 아닌 확실한 '미국' 소설로 만드는 특징인데,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개개인들의 투철한 자기인식은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어리숙한 외모에 지독한 외곬수인 소설가도, 사명감에 휩싸인 평론가도, 책을 사랑하긴 하지만 결국 보수적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노부인' 독자도 그래서 정겹다. —강성민 기자

<p><b>출력" 24시간</b> 당신을 위한 <b>논스톱</b> 이제는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p> <p><b>자동하리교미무료</b> 대동전산</p>	<p><b>IBM &amp; MAC 전문출력</b> Corel Draw, 아래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용 기타 소프트웨어</p> <p>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대형드럼스캔 대형실사출력, CLC칼라출력 인화지, 단도필름, 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p> <p>● 출력문의 환영합니다 ●</p>	<p><b>대동전산</b> 2275-0196~7 E-mail: sogo0318@chollian.net</p> <p>명보극장 ● 광개토 울지빌딩(충구, 울지병원) <b>대동전산</b> 울지로33기 지하철역 10번출구 장미 ● 울지빌딩(충구, 울지병원)</p>
--------------------------------------------------------------------------------------------------	----------------------------------------------------------------------------------------------------------------------------------------------------------------------------------------------------------------------------------------------------	-------------------------------------------------------------------------------------------------------------------------------------------------------------------------